

광주교대 총장선거 전국 첫 모든 학생에 투표권

교수협 직선제 방식 확정...선관위 위탁 3월 온라인 투표

학생 반영비율 13% 국립대 최대...타 대학 영향 관심

광주교육대학교가 학생들의 선거 반영 비율을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13%로 정하는 파격적인 총장 직선제 안을 마련했다. 광주교대가 학생 선거 반영 비율을 두자릿 수로 대폭 상향함에 따라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0일 광주교대에 따르면 전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 반영 비율은 교수 73%, 직원 14%, 학생 13%로 정했다.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선거 반영 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국립대에서는 처음이다.

직선제 관련 규정을 확정했거나 논의 중인 목포대, 한국교통대, 경북대, 공주대 등도 반영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광주교대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 매수 우려를 없애고자 투표권을 전체 학생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전체 투표권 부여도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다.

또 학생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온라인 투표를 도

입하기로 했다.

김준식 광주교대 학생회장은 “학생 선거 반영 비율이 애초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게 인정돼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예전과 달리 총장선출 규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회에 학생, 교직원 대표가 참여해 규정을 마련한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교대는 우선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조만간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직선제이던 총장 선출 방식

을 2011년에 간접선거 방식인 공모제로 바꿨다가 6년 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

광주교대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0월 두 차례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에서 김모, 강모 교수를 각각 1·2순위로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잇따라 재추천 요구를 하면서 15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 전체 투표권 부여로 그동안 직선제 폐해로 지목된 파벌, 보직 매직 등 각종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교대 구성원들의 이번 결정이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상 07:41
해진 17:39

달출 02:22
달짐 13:39

눈 세상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 낮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고 눈	-8/-2	보성	구름많음	-9/-2
목포	구름많고 눈	-7/-3	순천	맑음	-7/-1
여수	맑음	-6/1	영광	구름많고 눈	-10/-4
나주	구름많고 눈	-9/-2	진도	구름많고 눈	-4/-1
완도	구름많고 눈	-5/1	전주	눈	-10/-5
구례	구름많음	-11/-4	군산	눈	-9/-4
강진	구름많음	-8/1	남원	구름많음	-13/-5
해남	구름많고 눈	-8/-2	축산도	구름많고 눈	-4/0
장성	구름많고 눈	-1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남부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남해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서부	북서~북 3.0~5.0	북서~북 3.0~4.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32 15:23	09:53 21:59
여수	11:13 23:28	05:23 17:05

◇주간 날씨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9/-2	-5/5	-4/7	1/9	0/9	4/8	1/7

◇생활지수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5·18 발원지 전남대에 ‘민주의 길’

2020년 시민 개방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 학교에 ‘민주의 길’이 조성된다.

전남대는 교내 민주화운동 기념물과 유적, 오월 정신이 서린 공간을 연결하는 ‘민주의 길’을 조성해 시민 교육의 장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남대는 ‘민주의 길’ 조성에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설계비 5억원이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대는 올해 충분한 고증과 현장조

사, 공간 스토리텔링 기법에 기반을 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9년 본 공사에 들어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에 맞춰 민주의 길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이자 사적 제1호인 정문에서 시작해 교내 산재한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을 연결하게 된다.

민주의 길에는 법대 진입로 박관현 열사 기념비, 사회대 앞 윤상원 열사 흉상, 인문대 앞 교육자표현선 기념비, 사범대 민중항쟁도 벽화, 도서관 앞 ‘임을 위한 행진곡’ 조형물, 박물관 열사 추모석 등이 포함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벌금 전력’ 목포대 총장 후보 자적 논란

일부 “부적격” vs 대학측 “규정 준수”...교육부 결정 관심

직선제로 선출된 목포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가 총장선거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얻었으나,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목포대에 따르면 목포대는 지난달 7일 총장선거를 하고 제8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 50.01%를 득표한 이성로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2순위는 49.98%를 득표한 박민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목포대는 조만간 두 후보를 그대로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국·공립대 총장은 학교 추천을 받아 교육부 인사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부 학교 구성원들은 이 교수가 2010년 연구비 18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목포대는 이에 대해 총장선거규정에 피선거권자를 ‘재직 중 연구 및 연구비 부정 행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2007

년 2월 이후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면 고위 공직자 임명 자격 사유’라는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들어 부적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대 관계자는 “총장선거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합법적 절차로 선거를 치른 만큼 교육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성로 교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피선거권을 확보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까지 해서 선거를 했고 모든 절차가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운전중 폰 사용 보험료 할증
법규 위반 없으면 할인 추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깎아주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여수 봉산동 노인 교통사고 빈번

광주·전남 1위...도로 횡단 최다

지난 2016년 광주·전남 지역 가운데 여수시 봉산동 소망기도원 인근 도로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8곳에서 발생한 총 247건의 사고 가운데 186건(75.3%)은 도로를 횡단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불이행(68.4%),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0.6%), 신호위반(3.2%)순으로 나타났다.

／김용희기자 kimyh@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점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063-835-4771